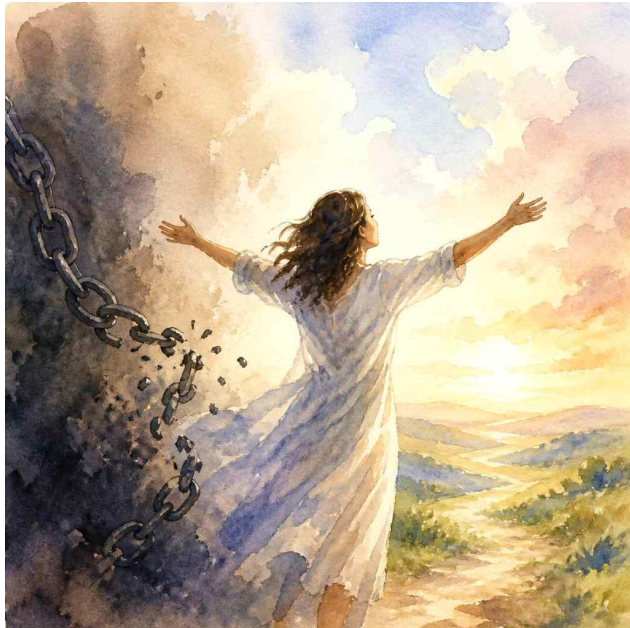




신석장로교회

담임목사 박근상

306-190 대전광역시 대덕구 석봉동 201-1
34305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대로1601번길 26
(엑슬루아파트 후문, 등마루 공원 앞)

교회 ☎ 932-5478 목사관 ☎ 934-9817 ☎ 사무실 934-9192

홈페이지 shinseok.net 유튜브 [박근상매일성경]

부활하신 예수님은 두려움에 갇혀 문을 닫고 있던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처한 현실은 여전히 위험했고,
세상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주님의 임재와 부활의 확신은 그들의 근심을 기쁨으로 바꾸었습니다.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는 제자들의 증언을 듣고도 믿지 못했고,
직접 보고 만져 보아야 믿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의심하는 도마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다시 찾아오셔서 못 자국 난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며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 도마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참 믿음은 인간의 경험과 감각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믿어지는 믿음입니다.
의심은 믿음의 끝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넘어설 수 있는 과정입니다.
보지 못하고도 말씀을 따라 부활의 주님을 믿는 자가 복되며,
그 믿음으로 영혼 곧 구원을 얻을 뿐 아니라
고난속에서도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살함과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지난 주일 설교중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24)

주 일 낮 예 배			
1부:오전8시		2부:오전9시30	3부:오전11시
		인도: 박근상 목사	
기 도			다 갈 이
경배찬송		1장	다 갈 이
성서교독		64번 148편	다 갈 이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 갈 이
찬 송		64장	다 갈 이
기 도		1부 이홍룡집사 3부 김천연집사	
성경봉독		요한복음8:31-36	인 도 자
찬 양		내 삶의 주인	성 가 대
설 교		자유의 비밀	박근상목사
기 도			인 도 자
찬 송		582장	다 갈 이
헌금봉헌		헌금함예	다 갈 이
헌금기도			인 도 자
광 고			인 도 자
찬 송		기쁨으로 찬양	다 갈 이
축복기도			박근상목사

■ 금주의 말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8:32

삼일예배 오후 7시 30분

합심기도
기도/ 전명숙 권사
말씀/ 박근상 목사
기도의 무기(5) 열6:18-19
찬송/ 369장
주기도문

새벽기도회 오전 5시 2층 본당

말씀/ 박근상 목사 성경- 에스겔 강해
*주일은 새벽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 교회소식 ■

- 1. 매일 에스겔을 묵상하며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 2. 주보에 ‘지옥이란 어떤 곳이며 누가 가는가’ 나갑니다.
- 3. 삼일예배에 “기도의 무기”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 4. 각부 여름사역을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6일(목)-8일(토) 청년부수련회를 은혜중에 마쳤습니다.
- 5. 모임- 월-대덕구연합회 임원회(목양실)
화-증경총회장회의(총회)
수-교회신보 편집회의(신문사) .

오늘은 온세대연합예배
소그룹의 날

신석주간기도

- 오직 주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온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한 예배와 섬김, 일치의 삶을 살게하소서
우리교회 다음세대 사역에 부흥이 임할 수 있게 하소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사역에 더 충만한 회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치료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 말은 청지기 ■■

	안 내	기 도	꽃꽂이
이번주	1층 오종화 박현규 2층 최정선 이화옥 주차안내 이상열 황학성	이흥률 김천연	오유화 오유은/생일감사
다음주	1층 이길연 김실근 2층 최정선 이화옥 주차안내 이상열 황학성	최민관 송춘자 조철한	윤준영/생일감사

청소담당:2,3층 이번주(08,14) 5구역(박종례) *1,4,5층은 담당자들이 수고하십니다.
다음주(08,21) 6구역(김춘자) *1,4,5층은 담당자들이 수고하십니다.

유아부(4층 유아실) 주일 오전11시 사회자 -윤태영 전도사 설교자 -윤태영 전도사 본 문 -요 3장 16절 제 목 -나병을 고침 받은 나아만	활동 1.8월 암송 말씀은 빌 4장 4절입니다. 2.오늘의 활동은 요 3장 16절 암송하기
유초등부(1층 교육관) 주일 오전9시 [예배] 온세대연합예배 드립니다. (11시, 본당)	1.온세대연합예배로 예배합니다. 2.8월 암송 말씀은 빌 4장 4절입니다. 3.매일 성경큐티와 성경읽기 열심히 하기 4.안전하고 건강한 방학 보내기
중고등부(5층 예배실) 주일 오전9시 [예배] 온세대연합예배 드립니다. (11시, 본당)	1.8월 성경읽기는 요한복음, 암송말씀은 요한복음 4장 23~24절입니다. 2.8/16(주일) 예배인도 김형섭 형제, 대표기도 백가은 자매, ppt 오한금채 자매입니다.
청년부(5층 예배실) 주일 오후2시 [예배] 온세대연합예배 드립니다. (11시, 본당)	1.청년부 여름수련회에 도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은혜주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2.8/15(토) 10시 교회 봉사 후 11시 사도행전 3장 말씀 읽기, 나눔, 기도회합니다. 3.8/16(주) 대표기도 한현구형제입니다.

공동 예배		
주일낮예배	1부 오전 8시 2부 오전9시 30 3부 오전11시	영유아유초등부 주일 오전 11시 중고등부 주일 오전 9:00 청년부 주일 오후2시
수요일예배 새벽기도회	오후 7:30 매일오전5:00	



인생 질문에 대한 답변(21)

지옥이란 어떤 곳이며 누가 가는가

기독교가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고 그렇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고 말할 때, 많은 사람은 그것을 독선적이고 배타적인 주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호와와 증인같은 이단은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일 수 있으며, 어떻게 사람을 지옥에 보내실 수 있느냐고 주장합니다. 큰 악행을 저지른 것도 아닌데 단지 믿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옥에 간다는 말이 과연 정당한가 묻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지옥은 단순히 하나님이 사람을 강제로 던져 넣는 형벌의 장소라기보다, 하나님 없이 자기중심적으로 살아온 삶이 끝까지 굳어진 최종 결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옥 교리는 하나님의 잔혹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선택과 삶의 방향이 얼마나 중대한지를 보여주는 엄중한 경고입니다.

성경의 지옥 이해는 점진적으로 드러납니다. 구약 초기에는 사람이 죽으면 누구나 가는 곳을 ‘스올’이라 불렀습니다. 스올은 선인과 악인, 신자와 비신자를 막론하고 죽음 이후 머무는 어둡고 무기력한 상태를 의미했습니다(창 37:35; 민 16:30-31; 욥 14:13; 시 55:15).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은 죽음 이후의 세계까지 다스리시며, 믿음으로 산 사람을 돌보시고 건지신다는 신앙이 나타납니다(시 16:8-10; 시 49:15). 더 나아가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을 부활시키시고 의인과 악인을 공의롭게 심판하신다는 믿음으로 발전합니다(사 26:19; 단 12:2). 신약에 이르면 지옥은 단순한 죽음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한 자들이 최종적으로 맞이하는 고통과 저주의 장소로 묘사됩니다. 예수님은 지옥을 꺼지지 않는 불과 심판의 장소로 말씀하셨고(마 3:12; 마 5:22; 마 18:9), 요한계시록은 그것을 불못으로 표현합니다(계 21:8). 곧 신약의 지옥은 중간 상태가 아니라, 인간의 운명이 최종적으로 결정된 상태를 가리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심판은 사랑과 모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분노는 죄와 악으로 인해 인간과 세상이 파괴되는 것을 보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반응입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악한 길로 무너져 갈 때 부모가 고통과 분노를 느끼듯, 하나님의 진노는 인류를 파괴하는 죄에 대한 거룩한 반감입니다. 사랑이 참되다면 악을 그냥 방치하

지 않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죄악을 드러내고 책임을 묻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은 사랑의 반대가 아니라, 사랑이 악을 대면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인간의 심판과 달리 완전히 공정하고 정확합니다. 인간의 판단은 제한적이고 편파적이며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만, 하나님은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정직으로 만민을 판결하십니다(시9:1-9).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믿음은 억울한 자에게 위로가 되고, 악이 마지막 말이 아니라는 소망을 줍니다. 만일 악한 자가 끝까지 책임지지 않고, 피해자의 눈물과 고통이 아무 의미 없이 사라진다면 세상은 참으로 절망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공의롭게 심판하신다는 믿음은 우리가 복수의 악순환에 빠지지 않고, 악한 현실 속에서도 선을 붙들 수 있게 합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두려움의 대상이면서도 동시에 억울한 자에게는 피난처와 소망이 되십니다.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는 지옥의 본질을 잘 보여줍니다. 부자는 단지 부자였기 때문에 지옥에 간 것이 아닙니다. 그는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며 살았지만, 자기 집 대문 앞에 버려진 가난한 나사로의 고통을 외면했습니다(눅 16:19-21). 그의 삶에는 이웃도, 긍휼도, 나눔도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보다 재물과 향락을 삶의 중심에 두었고, 결국 죽음 이후 고통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눅 16:22-26). 이 이야기는 지옥이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붙들고 살아온 삶의 최종 결말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옥으로 역지로 보내신다기보다,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 없는 삶을 선택하고 끝까지 그 길을 고집한 결과가 지옥입니다. 죄란 단지 몇 가지 규칙을 어긴 행위만이 아니라,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인생의 궁극적 의미와 가치로 삼고 살아가는 태도입니다. 돈, 성공, 인정, 쾌락, 자기 의로움도 하나님 자리에 놓이면 인간을 왜곡시킵니다. 그런 삶을 끝까지 고집하면 마음은 점점 냉랭해지고, 자기중심적이며, 고립되고,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 닫히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셨다고 말합니다(롬 1:24). 이것은 하나님이 무관심하시다는 뜻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는 인간의 선택을 심판 가운데 허용하신다는 뜻입니다. 결국 지옥은 하나님이 강제로 밀어 넣는 감옥이라기보다, 하나님 없는 삶을 고집한 인간이 스스로 안에서 문을 달아버린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악행을 저지른 것도 아닌데, 단지 예수를 믿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옥에 가는가?”라는 질

문이 남습니다. 이 질문에 답하려면 ‘예수를 믿는다’는 말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주이심을 교리적으로 인정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오셨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구원의 길을 여셨으며, 그분 안에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요 3:16; 행 4:12). 그러나 믿음은 동시에 예수께서 보여주신 생명, 사랑, 겸손, 희생, 용서, 소망의 길이 참된 길임을 받아들이고 그 길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요 14:6).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믿음은 그분의 인격을 신뢰하는 믿음이며, 그분의 길을 따르는 제자의 삶입니다.

반대로 예수 안에 나타난 생명과 사랑과 진리를 거부하고, 자기중심적 삶을 끝까지 고집한다면 그 삶 자체가 이미 지옥의 방향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빛이 없는 것이 어둠이고, 생명이 끊어진 것이 죽음이며, 진리를 거부한 것이 거짓이라면, 예수 안에 나타난 생명과 사랑과 진리에서 멀어진 삶은 이미 심판 아래 있는 삶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삶의 방향입니다. 예수님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고 하셨습니다(마 7:21).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예수의 생명, 사랑, 섬김, 희생, 긍휼, 소망과 전혀 상관없이 산다면, 그 믿음은 참된 믿음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지옥 교리는 사람을 겁주기 위한 교리가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의 마지막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경고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음을 믿을 때 우리는 악에 굴복하지 않고 선하게 살 힘을 얻습니다. 또한 지옥이 자기중심적 삶의 최종 결과임을 알 때,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돌이키고 진실하게 살아야 함을 깨닫습니다. 참믿음은 예수가 누구신지를 믿는 신자의 믿음과, 예수께서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는 제자의 믿음을 함께 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고, 우리는 그 아름다운 덕을 삶으로 선포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벧전 2:9). 그러므로 지옥을 말할 때 우리는 두려움만이 아니라, 지금도 사람을 어둠에서 빛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나눔식 소그룹 에스겔 38:14~23(8월 11일 본문)

최후 승리를 위한 하나님 계획

하나님 찬양하기 * 주가 세상을 다스리니(새 63)

Focus : 악의 세력은 결국 하나님의 손에 무너지게 됩니다.

마음 열기 한 주간의 삶과 QT, 감사 제목 등을 간단히 나누며 마음 문을 여세요.

말씀 열기 본문 읽기 에스겔 38:14~23을 함께 읽습니다.

배경 이해하기

37장이 '마른 뼈 환상'을 통해 이스라엘의 회복을 노래했다면, 38장은 회복된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새로운 대적자들의 등장을 다룹니다. '마곡' 땅의 통치자 '곡'과 연합군이 등장해 하나님 백성을 멸하려 합니다. '곡'은 누구며, '마곡'은 어디인지 정확히 밝혀진 바는 없으며, 일반적으로 그들이 특정 국가를 넘어 종말의 때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악의 세력을 상징한다고 봅니다. 성경은 이 영적 전쟁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결정적인 사건임을 강조합니다(8절; 계 20:7~10).

관찰과 묵상

1. 큰 군대를 이끌고 와서, 평안히 사는 이스라엘을 치는 이는 누구인가요?(14~16절)
그의 침략은 선지자들의 예언과 어떤 관련이 있나요?(17절)

2. 이스라엘을 치러 온 곡을 하나님은 어떻게 심판하시나요?(18~22절)

적용과 나눔

자신이나 다른 누군가가 악한 자의 공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 상황을 나누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길 함께 기도하세요.

말씀 다지기

이스라엘이 평안할 때 공격받았듯, 우리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위기가 찾아오곤 합니다. 그럴 때 모든 위기가 상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보아야 합니다. 대적의 세력이 아무리 커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을 위해 싸우시며, 악이 스스로 무너지게 하십니다. 믿음은 상황을 통제하는 힘이 아니라, 어떤 순간에도 모든 상황과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태도입니다.

말씀으로 기도하기

두려움이 몰려올 때 제 시선을 상황에 두지 않고 주님께 두길 원합니다. 모든 대적의 공격 앞에서 견고히 피난처 되신 주님만 의지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기

1. 조국을 잃은 아픔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았던 선조들을 기억하며, 자유를 지키고 나라를 바르게 세우는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국민이 되길 기도합니다.

2. 온두라스 국민 의회가 '성경 읽기'를 공립 교육 과정에 도입하는 법안을 검토합니다. 신앙 교육을 통해 온두라스의 다음 세대가 그리스도의 제자 되길 기도합니다.

* 찬양, 헌금, 헌금 기도 및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모임을 마칩니다.

메모

본문:

제목:

이름:

이번 주간에 꼭 실천해야 것을 구체적으로 적어보세요

신석장로교회

1984년 5월 17일에 설립된 예수교장로회(대신)총회에 소속된 교회입니다. 바르게 배우고 바르게 행하고 바르게 전하는 그 교회가 영구표어입니다. 박근상 담임목사는 대덕구기독교연합회 회장, 대덕경찰서경목실장 대전기독교연합회회장, 부총회장을 역임하고 대전극동방송, 대전기독교방송을 통하여 1만회 이상 매일 강해설교를 했고 유튜브[박근상매일성경]을 2600여회 방송중입니다.

■유튜브 [박근상매일성경] ■홈피 shinseok.net

주님의 시간에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

담임목사: 박근상

교육목사: 최민관 전도사: 윤태영

사무장로: 김일남 박현철 오종수 유상수 이상선 이상열

협동장로: 박성훈

사무간사: 손영문 건물관리 총무: 오종수

성가대지휘: 최의석 반주: 피아노- 김래아 유혜환 오르간:

찬양인도: 최의석

방송.영상: 중보기도사역팀: 천영임

홈피 관리: 최민관 손영문

이슬비전도대 총무: 노인숙 협동총무: 장민채

강단꽃꽂이: 김향례 박종례 손영문 유은희 최금숙 황순화

차량봉사: 남기성 이상열 유상수 주차관리: 김종기 오종수 이상열 황학성

담임목사 방송사역

10 분 설 교 대전극동방송(FEBC)

주 일 설 교 대전기독교방송 CBS

오늘의 은혜로 대전기독교방송 CBS

TV방송칼럼 대전CTS

매주(월) 오전10시 50분(내가 매일 기쁘게)

매주일 오후5시 (신석의 시간)

매주(금) 오후1시 5분-15분

매주(토) 오전 10시 50분(로템나무)